

## 부모교육에서의 코칭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

이소희\*\* 서우경\*\*\*

### 요 약

본 연구는 전형적인 부모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시도되고 있는 코칭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부모코칭 연구의 확충과 실천에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코칭연구와 실천동향을 파악하고, 인접영역인 아동코칭의 연구동향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효과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부모코칭 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부모코칭의 경우, 2004년~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국내의 부모코칭 관련 연구 및 실천 동향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아동코칭의 경우, 1987~2007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학회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론적 및 실천적인 두 차원에서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일반 부모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녀의 발달단계와 발달영역별 발달특성에 따른 욕구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또한 연계·통합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질적 연구도 이루어져서 인간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내면적 욕구들이 내적 대화들이 밀도 있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코칭의 효과성 검증에서 관련된 다양한 심리 및 발달 척도들이 사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합도가 높은 척도가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그다음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전문 부모코치를 양성하고, 부모코치 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부모코칭 전문 기업과 센터는 물론 일반 코칭기업에서의 부모코칭파트와 대학 및 연구소등과의 산학협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코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각 학교와 센터, 복지관, 상담소 등이 가교역할을 할 필요가 크다.

주제어 : 부모코칭, 아동코칭, 부모교육

논문 제출일 : 2008. 02. 15

최종 심사일 : 2008. 04. 19

\* 이 논문은 2007년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 책임교수,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연계전공 교수, 주저자  
Corresponding Author : Suh, Woo-Kyung, Dept. of Yonsei University,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Head Professor of Coaching Academy, 134, Shinchon-dong, Suhdeamoon-gu, Seoul, Korea, 120-749. E-mail : swk@yonsei.ac.kr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을 일컬어 급변의 사회이자, 동시에 지혜가 요구되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적 경향 등이 지금까지의 각 개인과 가족의 삶의 조건과 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서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생존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피터 드러커, 2007).

그리고 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자원의 육성이 최대의 과제이자, 전략이며, 그 핵심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간발달의 초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이라고 보고 있다(한국영리더십센터, 2006). 동시에 적극적으로 아동자원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실제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수의 부모교육연구가 이루어져 왔다(한국부모교육학회, 2004 - 2007년도 학회지).

이러한 부모교육연구에서 최근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부모교육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소희, 2005a, 2005b, 한국부모코칭센터, 2005). 즉 이러한 주장들은 부모교육이 필요하고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부모교육 수요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및 그 효과에 대한 지속성도 낮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의 대처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소희, 2007a, 한국가족복지학회, 2006). 즉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물론, 그 부모들을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기관장, 상담소장, 복지관장, 보육정보센터장 등 그들 스스로가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상부하달식의 교육에 따른 임시방편적, 내지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부모 및 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준전문가 이상급의 사람들 모두가 외부 전문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래의 부모교육보다는 일정한 교육 후, 자신의 내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접근을 코칭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다음 2가지의 코칭철학과 코칭연구 및 실천동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코칭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욕구충족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만약 더욱 효과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철학적 배경(에 노모토 히데타케, 2004)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의 부모코칭 동향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코칭철학에 기반하여 다양한 코칭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모코칭도 검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코칭은 최근 3~4년 동안 사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탁월한 효과도 경험적으로 공유되는 바가 크다. 그렇지만 아직 학술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하는 점에서는 미흡한 바, 부모코칭의 확충을 위해서는 이론적 체계화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반해 부모코칭의 최인접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아동코칭의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코칭이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코칭 기술을 사용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짐과 동시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코칭의 연구와 실천 동향을 파악하고, 인접영역인 아동코칭의 연구동향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효과성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코칭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에 부응한 본 연구는 부모코칭의 효과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연구의 확충과 실천의 확산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문제와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특히 동향파악을 위해 코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코칭과 관련된 신문, 잡지, 코칭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 1. 연구 문제

- 1) 부모코칭의 국내연구 및 실천 동향은 어떠한가?
- 2) 아동코칭의 연구보고 동향은 어떠한가?
- 3) 부모코칭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이론적 체계화 방안은 무엇인가?

## 2. 연구 범위와 과정

본 연구에서 부모코칭이라 함은 코칭철학에 기반한 코칭기술을 사용하여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대화기술로 정의하며, 연구문제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1) 연구문제 1의 대상 논문 : 국내에 부모코칭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루어진 단행본, 석·박사학위논문, 학회지, 대학연구소 논문 중에서 ‘부모코칭’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였다. 이 결과, 코칭 관련한 학위논문은 89건, 학술지 67건, 단행본은 62건이었으나 ‘부모코칭’을 논문 주제 키워드로 발표된 연구는 없었으며, 육아서적 1권이 검색되었다. 따라서 연구 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논문은 없고, 코칭육아서만 동향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문제 2의 대상 논문 : 국내에서 ‘아동코칭’을 키워드로 한 연구가 시작된 1987년도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루어진 단행본, 석·박사학위논문, 학회지, 대학연구소 논문 중에서 ‘유아코칭’과 ‘아동코칭’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였다. 이 결과 석사논문이 5편, 학회지 논문이 1편이 검색되었다. 따라서 연구분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연구대상논문은 총 6편이다.

### Ⅲ. 국내 부모코칭의 연구 및 실천 동향의 고찰

국내에서 코칭의 도입은 2000년대 초반으로,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코칭을 경험한 기업경영과 교회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각자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내·외에서 코칭교육과 실제 코칭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 속에 부모코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코칭은 기업법인의 형태로서 본격적인 사회화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시초를 2002년 <인코칭>과 <한국코칭센터>의 설립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부모코칭의 경우, 2004년 <영리더십 & 부모코칭연구소>로 출발한 이후, 여러 코칭 기업에서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부모코칭을 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을 부모코칭의 시작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의 연구 시작 시점인 2007년 상반기까지의 부모코칭 연구 및 실천동향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와 기업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영리더십과 부모코칭연구소>가 출범한 이후 <한국부모코칭센터>로 개칭하고 법인화하여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모코칭은 여러 코칭기업에서 코칭서비스사업의 중요한 한 파트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소와 코칭 기업들이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개발과 코칭교육 및 임상코칭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편이다. 물론 이러한 동향 가운데서도 일부 부모코칭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칭기업에서의 부모코칭의 위치는 비즈니스코칭과 커리어코칭 다음 순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코치협회의 협조를 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 라이프 코칭의 장을 열고, 이 속에 부모코칭 서비스를 포함시켰으며, 이후 점점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새터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코칭 및 부모코칭을 실시하고, 준전문가 양성을 시도한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울산광역시를 들 수 있다. 이후, 일반 부모들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한 예방복지서비스차원에서 특히 보육정보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부모코칭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및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셋째, 대학 차원에서의 부모 코칭 : 대학에서의 부모코칭은 연구 및 교육과 실천의 2영역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연구 및 교육차원에서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숙명여대에서 부모코칭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복지 전공의 석사과정 영역에서 <부모-자녀 리더십 계발과 코칭> 및 <NLP 이론과 코칭 기법>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코칭아카데미 과정에서 부모코칭이 코칭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천차원에서는 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상담소,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남서울대학교와 백석대학교를 들 수 있다.

넷째, 학회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부모코칭 관련 자격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가족복지학회에서 가족코치사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속에 부모코칭과 부부코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한국부모교육학회에서는 부모에 초점을 맞춘 부모코치사 양성을 시작하였는데, 그 목표는 부모코치전문가 및 부모를 코치로 육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 두 학회에서는 양성된 가족코치와 부모코치 전문가는 전국 각 곳에서 부모코치 교육자 및 코치로 활동하게 되므로서 부모코칭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 영역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아동코칭센터가 설립되어 부모코칭 및 교사코칭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된 기관들이 설립되어 아동코칭 프로그램을 개발과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코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모와 교사 및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코칭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전문가와 산학 협동에 의한 부모코칭 : 코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 및 기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바, 이러한 차원에서 산학협동으로 국내 최초의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회에 보고되었다. 그 예로 이소희와 윤운성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부모코칭센터와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가 주관을 맡은 에니어부모코칭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윤운성, 이소희, 2007).

이상의 국내 부모코칭 연구 및 실천 동향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부모코칭 연구 및 실천 동향

연 도	기 관	특 징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더십센터</li> <li>한국부모코칭센터</li> </ul>	<연구소와 기업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첫 부모코칭 기관 출범 및 프로그램 개발 시도</li> <li>코칭교육 및 임상코칭 시도</li> </ul>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부(한국코치협회협조)</li> <li>경북여성정책개발원(울산시)</li> <li>보육정보센터(서울시, 인천시)</li> <li>건강가정지원센터(천안)</li> </u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전문가 양성시도</li> <li>예방적 차원의 가족·부모코칭 실시(ex, 새터민 가족)</li> </ul>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명여자대학교</li> <li>한국가족복지학회</li> <li>한국아동코칭센터</li> </ul>	<대학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코칭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교육적 시도(ex, 부모-자녀 리더십 개발과 코칭, NLP이론과 코칭기법 개설)</li> <li>우리 나라 최초로 부모코칭 자격 과정 개설 및 운영(ex, 가족 코치사 양성 및 부모코칭과 부모코칭)</li> </ul> <인접 영역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ex, 부모 및 교사, 기관장 대상의 코칭 연계프로그램 실시)</li> </ul>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li> <li>한국부모교육학회</li> <li>한국부모코칭센터 &amp; 한국에너지그림 교육연구소</li> </ul>	<대학원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코칭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개됨</li> </ul> <학회차원에서의 부모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코치사 및 부모코치 전문가 양성 시작</li> <li>산학협동으로 국내 최초의 에너지부모코칭 프로그램 공동개발</li> </ul>

이밖에 효과적인 부모양육을 위한 차원에서 부모코칭에 관련된 책이 출간되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 등에서 부모코칭을 소개하고 있다(Ellinger, Adrea & Bostrom, Robert, 1999; Curly, 2001; Haskins, Diana, 2001; Davia, Theresa & Robert, 2004)

이러한 부모코칭의 연구와 실천은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외부자원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부모의 내재적 자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몰입하도록 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과 그 기술의 향상에 두고 있다.

#### Ⅳ. 아동코칭 연구동향을 통해 본 부모코칭의 효과성 검토

아동코칭 분야의 연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코칭연구와 유사한 시기에 태동되었으나, 라이프 코칭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2000년 초반에 들어서 석사학위논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특정대학의 특정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학회에 보고되었다.

아동코칭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이윤옥(1987)이 시도하였는데,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술훈련 차원에서 코칭이 전략적 기술로서 활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同) 연구자는 1993년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또래 관계 기술지도 프로그램에서 코칭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역시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박진재와 이은혜(2002)는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social skill intervention program)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코칭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또래수용도가 높은 또래 아동과의 협력활동(cooperative peer learning activity)과 코칭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중재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미숙(2002)은 코칭을 통한 사회적 강화의 기법으로 관심과 칭찬을 사용한 결과 장애학생의 주의집중행동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아동과 장애 아동 모두에게 코칭이 효과적인 사회기술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코칭모델과 특정한 코칭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적용한 연구는 2005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코칭모델은 코칭의 용이함과 효과성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는 점과 코칭이 다른 관계기술과 차이점이 코칭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CCU, 2004), 비로소 체계적인 코칭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현희(2006)는 위인동화를 활용한 코칭 프로그램이 유아의 주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석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2007년도에 인물 이야기를 활용한 SWOT 모델 코칭 프로그램이 유아의 주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원희(2006)는 CCU 코칭 대화모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유아의 대인관계 증진을 확인한 결과,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혜진(2006)은 NLPia 코칭 프로그램의 ANCHOR 모델을 활용하여 시설아동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그 효과성을 확인받았다. 또

최영례(2007)는 위인동화를 활용한 NLPia 코칭 프로그램에서의 ANCHOR 모델을 활용하여 자아효능감 증진 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2007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아동코칭의 연구는 일반가정의 아동, 시설보호아동 및 장애아동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코칭 연구대상의 광역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및 아동기의 개인적 발달과 대인관계의 발달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주도성과 자아효능감 및 사회성 발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코칭 연구에서의 발달연계와 함께 전 발달영역을 망라한 연구범위의 확대가능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칭이 부모와 연계될 때, 그 효과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므로써 아동코칭을 통한 부모코칭의 연계성에 대한 실천적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 V. 부모코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실천적 체계화 모색

본 연구는 부모교육에서의 코칭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 시도되었다. 예비조사결과, 부모코칭연구 부재로 인하여 ‘부모코칭’의 동향을 직접적인 문헌을 통해 연구할 수 없었고, 아동코칭과 일반 코칭의 동향을 통해 간접적이지, 탐색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모코칭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아동코칭연구를 통해 부모코칭 연구의 활성화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한국코치협회([http : www. kcoach.or.kr](http://www.kcoach.or.kr))와 라이프 코칭 관련 사이트 6곳을 참조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코칭의 발달도 그러하려니와 국내에서의 코칭의 역사가 짧고, 더구나 라이프 코칭영역에서의 부모코칭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나 동일한 라이프 코칭영역에서, 아동코칭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현재 기업과 센터를 중심으로 부모코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부모코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체계화는 그 발전의 속도와 수준을 충분히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코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대안

비즈니스 코칭으로 출발한 코칭의 역사적 배경을 미루어 볼 때, 부모-자녀관계를 염두에 둔 초기의 이론적 기반의 적합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코칭을 비롯한 라이프 코칭 등 모든 코칭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건강한 의사소통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기개발 및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상호 지지를 통한 성과향상에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심리학 영역에서 밝혀진 논리가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 및 실천 과학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재구조화 한다면, 코칭학으로서의 가능성은 물론, 부모코칭에서도 견고한 이론적 뼈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부모코칭의 이론적 대안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부모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부모코칭의 효과 검증은 어렵고,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자녀)를 통한 코칭에서 원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는 단계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접 과학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인 것이다. 이것은 아동코칭의 연구가 특정한 프로그램과 모델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코칭의 연구가 유아-아동기의 발달단계를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일반아동, 장애아동, 시설 아동 등으로 그 대상이 다양하고, 개인발달 및 대인관계 발달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코칭에서도 자녀발달단계와 발달영역별 발달특성에 따른 욕구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또 연계·통합하는 것은 부모코칭과 아동코칭의 연계된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아직 부모코칭이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에 대한 접근이 각각 및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질적 연구는 코치이의 내면의 심리적 역동 과정을 깊이 있게 파악해 줄 뿐 아니라 코치와의 사이에 관계의 역동성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코칭의 효과성 검증에서 관련된 다양한 심리 및 발달 척도들이 사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적합도가 높은 척도가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비즈니스 코칭영역에서는 코칭스타일 척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척도들을 변안-재구조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며, 이를 코칭철학에 맞게 신규 개발하는 것 역시 과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척도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코칭 입상에 대한 경험적 결과가 축적되어야 하므로 후술할 학계 및 산학현장에서의 주도적이자, 실험적인 시도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하되, 그 결과는 조심스럽게 분석·축척·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실천적 대안

부모코칭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는 부모코칭의 이론적 성숙과 맥을 같이 한다. 특별히 실천적 대안의 압권은 그 무엇보다도 부모코칭 전문인력의 양성과 부모코칭의 강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이며, 이를 통해 코치의 자격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먼저 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코칭에 대한 시도가 촉발되었으며, 대학에서 부모코칭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부모관련 학회에서 부모코치사 및 가족코치사 자격제도를 두고 학회인증 전문가를 양성을 시작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코칭기술의 실제에서 다소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이루어진 비즈니스 코칭 분야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상담이나 치료 영역에서 사용되었던 기술을 코칭영역으로 재구조화 하는 시도도 밀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혹자는 이렇게 될 경우, 교육-상담-치료 사이에 명료한 경계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인간관계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철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부모코칭의 실천적 대안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코칭과 달리 수익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부모코칭의 성숙과 사회저변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실천적 대안은 부모코치의 자격을 전문화하는 것이며, 이 전문화는 명실상부 사회 및 국가적인 공인을 받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이 자격의 수준은 현재 2-3년제 과정

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수준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준의 공인화된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는 긴밀한 산학협동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학회가 중심이 되어 학회인정 자격과정에서 전문코치를 양성하고, 계층과 발달단계를 초월한 부모코칭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대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유아교(보)육기관과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복지센터 등을 활용하면 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양립(WLB: Work-Life Balance)은 글로벌 경쟁사회에서도 블루오션을 지향하며, 가족친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최근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이소희 2007b, 2007c).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모코칭은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는 오늘의 분주한 경쟁사회에서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서 산학기업간 협조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코칭의 전략적 도입을 위해 주도적인 참여가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부모코치사의 양성과 부모코치사에서 공히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부모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부모 그 자체의 역량보다는 자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알아도 자신의 역량강화보다는 타인을 통한 자녀의 역량강화에 더 관심을 두는 현실적 한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서 코치로서의 부모역량 강화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전통적인 부모교육의 효과에서 진일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아동인 자녀를 코칭의 핵심영역으로 끌어 안으면서 서서히 부모를 관심이 영역이 아닌, 영향력의 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천적 대안의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코칭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교류를 통해 부모코칭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고, 부모코칭의 인프라 기반이 약하지만, 다른 코칭영역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부모코칭전문가들이 주관적 수준의 연구로부터 점점 객관화된 수준의 연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론과 현장이 통합한 부모코칭연구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학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는 물론, 부모교양서적으로 출판하고, 홍보하는 역할에서도 주도성을 발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연구에 기업이 연구비의 제공과 프로그램의 실시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한국코칭학회와 한국코치협회의 협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 선례 모델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진재·이은혜(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83-110.
- 아베 마사이(2006). 내 아이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대화기술 코칭. 대교출판.
- 에노모토 히데다케(2004). 마법의 코칭, 새로운 대안.
- 윤운성·이소희(2007, 12월 출시 예정). 에니어부모코칭.
- 이미숙(2002). 행동계약과 코칭을 통한 강화가 장애학생의 수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2005a). 성공하는 유아교육기관장을 위한 부모코칭의 이론과 실제, 서울시보육정보센터.
- 이소희(2005b). 부모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부모코칭.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소희(2007a). 부모코칭.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소희(2007b). 멋진 부모되기. 사립유치원 연합회 학부모 부모교육.
- 이소희(2007c). 행복한 성공 경영 실현을 위한 MVP 원장 리더십 워크숍.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 이윤옥(1987).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유치원 아동의 코칭과 모델링 전략을 통한 사회적 기술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8권 제1호.
- 이윤옥(1993). 또래관계 기술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사회성 증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희(2007). 위인동화를 이용한 코칭적 접근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혜진(2006). NLPia 코칭 프로그램이 시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2006). 유아코칭에서의 주도성 향상을 위한 위인동화의 활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2007). 인물 이야기를 활용한 SWOT 모델 코칭 프로그램이 유아의 주도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1호.
- 최영례(2007). 위인동화를 활용한 NLPia 코칭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피터드러커(2007). 피터 드러커의 마지막 통찰. 명진출판.
- 한국가족복지학회(2006).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부모교육학회(2004-2007). 년도별 학회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부모코칭센터(2005). 유아의 다중지능 계발을 위한 부모코칭.
- 한국영리더십센터(2006). 행복한 글로벌 성공리더를 키우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장 리더십 특강.
- 코칭클리닉(2004). CCU Korea.

- Curly Martin(2001). *The Life Coaching Handbook : Everything You Need To Be An Effective Life Coach*. Crown House Publishing.
- Davia H. Montross, Theresa E. Kane & Robert J. Ginn, Jr(2004). *Career coach your kids*. Davies-Black Publishing.
- Ellinger, Adrea D. and Bostrom, Robert P(1999). Managerial coaching behaviors in learning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nt Development*, Vol.18, No.9, pp. 752-771.
- Haskins, Diana(2001). *Parent as Coach : Helping your teen build a life of confidence, courage and compassion*. Diana Haskins.

[http : www.asiacoach.co.kr](http://www.asiacoach.co.kr)

[http : www.kidcoaching.co.kr](http://www.kidcoaching.co.kr)

[http : www.kcoach.or.kr](http://www.kcoach.or.kr)

[http : www.mentorcoach.co.kr](http://www.mentorcoach.co.kr)

[http : www.parentcoaching.co.kr](http://www.parentcoaching.co.kr)

[http : www.theracoaching.com](http://www.theracoaching.com)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aching approach in Parent education

Lee, So-Hee\*    Suh, Woo-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study on parent's coaching and to spread it in its practice by improving recogn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cent coaching approach in an attempt to overcome limitation of typical parent education.

For this purpose, by using documentary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er grasped study on parent's coaching in our country and plans for its practice. And through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coaching for children as an adjacent field, the researcher confirmed positive effectiveness and then tried to grope for plans for raising parents' coaching on the basis thereof.

The scope of study for parent's coaching is centered on domestic researches on parent's coaching & data of the trend of its practice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the first half of 2007, and the scope of study for coaching for children is centered on academic journals and theses for degree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97 to the first half of 2007.

As the result of study, the researcher drove plans for raising effectiveness both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and summarization thereof is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oretical asp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arent's coaching program for both general and various parent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Second, such program must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children's desire and problems characteristic to their developmental stages and area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nect and combine them.

---

\*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ild welfare.

\*\* Yonsei University,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Head Professor of Coaching Academy.

Third, now there is mainly quantitative study, but qualitative study must also be made so that human being's inner desire and communication for growth and success would be expressed in depth. Fourth, it is necessary not only to use various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standards being related to verification of coaching effects but also to develop and use standards with high suitability.

At the next practical step, first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parent coaches and to raise social recogni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parent coach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ent's coaching parts in general coaching enterprises as well as professional enterprises and centers in parent's coaching, and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rovide parents with recognition of necessity for parents-children coaching, and for such purpose, each school, center, welfare center, and consultation office, etc. must do bridge-building role.

**Key Words** : Parent Education, Parent Coaching, Child Coaching